

광주 국회의원-단체장 갈등 위험수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선 4기 광주지역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감정 싸움을 벌이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 우려는 물론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선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감정싸움은 이미 수습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뼈저리게 박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관계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갈등이 증폭되어 왔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박 시장을 고소,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상호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과 우리당 광주지역

지방선거 양극 시장 고소등 감정싸움 고조 취임식 불참 신경전...지역현안 차질 우려

의원들과의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우선 기초 단체장 취임식 행사에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장 취임식에 꼭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쌓인 감정의 양극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장은 지역구 의원인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에게 아예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일이 그렇게 됐다"며 난감한 입장을 나타낸 반면, 양 의원은 "참석하

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초청장도 보내지 않는다"며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여당의원 중 유일하게 김태홍 의원만이 송광운 북구청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호 불신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단체장들의 단적이 달라진 민선 3기 후반부터 드러났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차기 선거에서의 위협 상대로 인식하면서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화수도 조성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놓

고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과 박광태 시장은 상당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으며 동구, 남구 등 당적이 다른 구청장과 지역 의원들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민선 4기 광주지역 단체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계가 민선 3기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자치 단체장들이 당적을 떠나 광주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관인데 실망스럽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좀 더 가슴을 열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계청 발표 '통계로 본 여성의 삶'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홑벌이 등 비맞벌이 가구의 1.38배에 달하고 지출은 교육, 외식비 등을 중심으로 1.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흑자액은 비맞벌이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부시게 늘고 있으나 남녀간 임금격차 등 불평등 요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자녀양육 등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물도 많은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2일 여성 관련 각종 통계를 모아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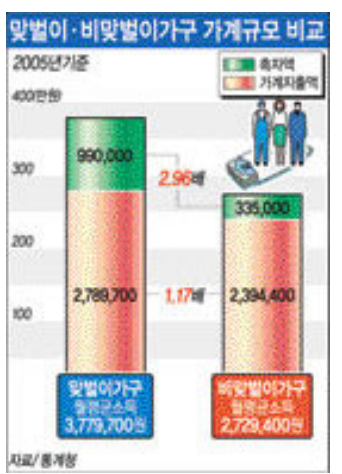
경제활동 참가율 첫 50% 돌파 맞벌이가구 소득 月 378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 비맞벌이 가구의 1.38배=통계청은 7천500 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가계수치 조사 대상 중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7만9천700원으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105만300원(38.5%)이 더 많았다. 맞벌이와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 격차는 전년보다 10만4천800원 더 벌어졌다.

그러나 가계지출액은 맞벌이 가구가 278만5천900원으로 비맞벌이보다 39만5천300원(16.5%) 더 많은데 그쳤다. 결국 쓰고 남는 저축 등을 할 수 있는 흑자액은 맞벌이가 99만원으로 비맞벌이가(33만5천원)의 2.96배에 달했다. 항목별 지출액을 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식비가 32만3천원으로 비맞벌이보다 39.5% 많고 교육비도 29만5천900원으로 35.6% 더 지출, 외식이나 교육에 대한 맞벌이 가구의 큰 씀씀이를 반영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상 첫 50%대 돌파=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49.8%에서 지난해 50.1%로 상승, 처음으로



대학진학을 80% 진입 임금은 남성의 62.6%

가구의 경우 외식비가 32만3천원으로 비맞벌이보다 39.5% 많고 교육비도 29만5천900원으로 35.6% 더 지출, 외식이나 교육에 대한 맞벌이 가구의 큰 씀씀이를 반영했다.

◇여성 대학 진학을 첫 80%대 진입=여성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2004년 79.7%에서 지난해 80.8%로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2003년부터 80%대를 넘었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대를 기록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석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43.0%, 박사 학위 취득자중에서는 26.0%를 각각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성 임금 남성의 62.6% 수준=여성의 지위가 눈부시게 신

50%대를 돌파했다.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게 아니다. 지난해 위무고시 합격자중 여성의 비율은 52.6%로 남성을 따돌렸고 행정고시에서는 44.0%, 사법시험에서는 32.3%를 각각 차지했다.

◇출산율 급락=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으로 2004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지난해 27.7세로 1990년보다 2.9세나 늦어졌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기획예산처장관 유력 장병완차관 광주일고 출신 정통 관료 광주·전남 예산확보 기대

노무현 대통령이 빠르면 3일 재경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가운데 장병완 차관의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여부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장병완 차관이 기획예산처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등을 거친 뒤 기획예산처의 경제예산실장, 기금정책국장, 예산실장 등을 역임한 기획예산처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통재 문관부 장관이 물러나고 전정배 법무장관도 곧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장병완 차관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무난하게 기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은 장병완 차관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기용된다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병완 차관의 장관 임용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고려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지난 75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들어섰으며 경제기획원 예산관리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등을 거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병완 차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2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명규 문화관광부 장관과 일본 기타가와 가즈오 국토교통성 대신, 중국 사오 치웨이 국가여유국 국장(오른쪽부터)이 회담 선언문을 들어보고 있다. /연희뉴스

靑 "경제·교육 부총리 인사 오래전 구상"

권오규·김병준씨 청와대 거쳐 내각 주요 포스트 배치

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한다는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구상 속에 일찍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두 분을 양 부총리에 기용하겠다는 뜻은 오래전부터 고려해온 인사포석"이라며 "돌연한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경제협력기구(OECD) 대사로 재임중이던 권오규 실장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으로 불러들일 때부터 차기 경제부총리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경제정책수석 임명후 한달여만에 곧바로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비통을 이어받도록 한

것도 차기 경제부총리로 기용하기 위한 수순이었고,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사표표명으로 시기가 빨라졌다는 것. 정책실장으로서 내각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노 대통령을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험을 통해 '예비 학습' 기간을 뚫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은 그가 지난 5월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날 때부터 예고됐던 것이다. 하지만 김병준 전 실장의 인사포석은 지난 3월말 그의 총리 기용이 무산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분위기 등을 고려해 '김병준 총리카드'를 접고 한명수 총리를 임명하면서 김 전 실장을 일정기간 쉬게 한 뒤 다른 중책을 맡기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



권오규 정책실장



김병준 前정책실장

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료중 김우식 과기부총리(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석 통일부장관(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반기문 외교부장관(전 외교보좌관), 윤광웅 국방부장관(전 국방보좌관), 이용섭 행정부총리(전 혁신관리수석), 김성진 해수부장관(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8명이 청와대 출신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BC English Camp. Features a group of students and text describing the camp'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1588-8010 and 062)367-0505, and website www.wawell.com.